

■ 서평

## 민중생활사 복원을 위한 의학사의 도전

###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 (과주: 들녘, 2014)

박윤재\*

한국 근현대 사학사를 정리할 때 1980년대는 민중사학의 시대였다고 써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 라는 말로 대표될 민중사학론의 시각은 크던 작던 당시 한국사를 배웠던 혹은 썼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그 시각이 도식적이었다, 자의적이었다, 부조적이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민중을 중요한 역사의 주체로 복원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역사 서술에서 민중에 대한 고려는 상식이 되었다. 역사에서 민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의료로 구체화시킬 경우 그 민중의 자리에 앉아야 할 주체는 환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사는 역사학 일반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1세기 십여 년이 지난 이제야 환자의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가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동원 교수의 『조선의약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들녘, 2014)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부제가 명확히 알려주듯이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중심이 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서술과정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가진 근대주의, 과학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 방법은 일상생활사이다. 생로병사는 인간이면

\* 경희대학교 사학과

(PARK Yunjae, Department of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점에서 일상생활사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 저자는 그 중 병앓이에 주목했다. 21세기 접어들어 민중사학에 대한 비판적 계승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민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목이다. 이 책은 저자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의학사의 새로운 경향을 넘어 한국 역사학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저자의 안내를 따라 한국 전통이 걸어온 의약생활의 길을 고대부터 하나하나 밟게 된다. 제목이 ‘조선’의약생활사라고 하지만 이 책은 사실상 ‘한국’의약생활사이다. 고대의 의약생활, 고려인의 의약생활까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생활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사료가 부족한 고대와 고려시기를 복원하기 위해 무덤에 부장되었던 묘지명을 활용하고 고려시기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속요를 이용하였다. 이규보의 시도 중요한 활용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은 조선시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의약생활을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기이다.

저자에게 일기는 일종의 보물섬이다. 저자는 보물섬을 뒤지듯이 그 일기들을 살살이 훑고 있다. 여기서 저자의 남다른 집중력이 발휘된다. 보물이 발견되면, 저자의 발굴은 깊숙이 이어진다. 예를 들면, 저자는 이문건, 즉 『목재일기』의 주인공이 소장한 서적을 목록으로 확인한 후 그 개별 책들에 대한 상세한 서지사항을 20여 쪽 가까이 서술하고 있다. 특유의 집중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이다. 하지만 중심은 역시 이문건이 남긴 의약생활에 대한 기술이다. 그야말로 의약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저자에 의해 포착되어 이 책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목재일기를 서술한 분량은 330여 쪽에 이른다. 웬만한 단행본 분량이다.

이 책의 장점은 구체성과 생생함에 있다. 각 시기의 의약생활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다. 부모가 병이 위중하면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 먹이는 고사가 전해지는데, 이 책은 그 고사가 사실임을 알려준다. 이문건의 손녀가 할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었기 때문이다. 다

만 할머니에게 직접 먹인 것은 아니고 살을 재로 만들어 죽엽수에 타서 먹였다. “죽어가던 할머니는 소생했다.” 18세기 정조가 홍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 책은 그 사실을 유만주나 황윤석의 일기에서 확인하고 있다. 다소 건조하게 다가오는 홍역 대책이라는 내용이 일기를 통해 촉촉한 생동감을 얻게 된 것이다. 허준, 양예수, 허임 등 한국의학사에서 이름만 듣던 의원들을 일기를 통해 확인하는 일은 기쁨을 준다. 비록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아 그들의 면모를 풍부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생함만은 분명하다. 마치 책이나 논문에서 이름만 듣던 학자를 직접 만나 대면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항의 편지는 당시 유의(儒醫)들의 의학 지식이 의원들의 처방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알려준다. 설사 가까운 친척간일지라도 남자 의원은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지는데 조심해야 했다는,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 다시 확인되기도 한다. 위인들도 이 책에서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띠게 된다.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아닌 병을 앓고 건강을 회구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묘사된다. 지금은 장년이라 하기도 쑥스러운 44세 때 정약용은 “눈은 어두운 지 벌써 반년이고 근육이 시어 손 하나도 못 쓰”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황윤석이 기록한 전염병 환자 시설, 즉 병막(病幕)에 대한 서술은 관련 자료의 영성함으로 인해 더 빛이 난다. 당시 병막은 공립시설에 해당하는 활인서 이외에 사설로도 건립되었으며 관리자가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시대상을 포착한 서술도 많다. 고려시기의 묘지명에 나타난 기록은 당시 고위 관료들이 공식적인 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국왕에 의해 의약을 제공받았음을 알려준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의료에서 차별은 낮은 일이 아니었다. 이규보가 앓은 일종의 피부병이 의원의 치료가 아니라 당시 그가 거주하던 강화 촌로들의 민간요법, 즉 바닷물 목욕으로 치료되는 모습에서 고려시기 지식인에 비친 전문 의료인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규보가 병을 앓으면서도 무당이나 관수를 부르지는 않는 모습에서 더 이상 초

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당시 지식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 의지는 조선시기로 이어진다. 손자가 이질에 걸리자 굶을 하면서도 무당의 말을 위로의 말, 허황된 말이라고 치부하는 이문건의 모습에서 괴력난신은 믿지 않는다는 유교 지식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손주들이 동네에 퍼진 두창을 무사히 피하자 역신이 떠난 것을 경하하는 배송굿을 벌인 사실은 중세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무와 의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기보다 보완적 관계를 유지했다. 고치기 쉬운 병에는 무당도 약을 찾을 정도로 약을 이용했다. 그렇지만 약이나 침으로도 소용이 없게 되면 새로운 대안으로 무당을 찾게 된다.”

중요한 지적도 많다. 저자는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는 의약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6세기에는 약이 주로 관아를 통해 유통되었다면, 18세기에 이르면 약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일종의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약재가 풍부해지고 의원의 수가 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처방에 대한 대가로 주로 현물이 이용되었다면, 18세기에는 화폐가 활용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 대가를 받은 주체가 유의인 점을 고려하면, 이제 의료가 인술의 영역을 넘어 상업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를 통해 성주 지역의 인구 대비 의원 수가 3천명에 1인이었다는 점, 여성 환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1/3임을 지적하며 여성 환자의 병으로 의원을 찾는 빈도가 낮지 않았다는 점, 진료의 방식이 문약(問藥), 문병(問病), 의약(議藥), 왕진, 의서 대출 등이었다는 점 등은 저자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다.

저자는 이 책이 무엇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논문’이 아니며, 따라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의약생활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큰 역사적 의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썼다. 그 결과는 천 쪽에 가까운 분량이다. 서평을 쓰기 위해 책을 펼쳤지만 평자가 가지고 있는 독서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두께였다. 두께만 놓고 보면 백과사전을 연상시킨

다. 그런 역할도 한다. 사전이 그렇듯이 독자들은 찾아보기를 통해 한국 의약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중간 박스 형식으로 자료를 첨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답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한국 전통의 의약생활이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내용 간에 계통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다. 변화의 흐름이 시대를 관통하여 서술되지 않은 것이다. 저자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조하였던 장기지속의 흐름 역시 열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고대의 치료법, 즉 주문이나 기도에 의존하던 치료법에서 처방을 통한 약 이용 나아가 전문 의료인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일련의 과정이 분절적으로 서술되었을 뿐이다. 다른 예로, 고려시기에 의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없었다면,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의학이 천업이 되었는지, 그 결과가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결과를 낳았는지 대답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다기보다 독립된 글들을 묶은데 있을 것이다. 자료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일기류 등 사용한 자료들이 단속(斷續)적으로 존재하는 까닭일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저자의 글쓰기 방식도 원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저자는 욕심이 많다.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면 그 의문을 푸는 새로운 내용이 서술된다. 이규보가 쓴 감사의 글에서 석곡환을 찾고, 다음으로 그 약이 실린 신집어의촬요방을 서술하는 식이다. 좋은 서술 태도이다. 하지만 그 서술이 종종 나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은 연구사 정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각 장마다 연구 동향을 신고 있다. 각 주제에 대해 최근 2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개이다. 독자들이 그 소개를 읽고 의약생활에 대한 연구의 갈래를 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중요한 지적도 산일되어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의약에 대한 소비가 낮아서 상업적인 활동의 영역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제약으로 작용했다.” 조선시기에 상업적 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즉 전문 의료인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서술한 대목이다. 한국 의료의 역사 서술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지적은 유의조차 사흘에 1건 이상의 진료를 하기 힘들었다는 통계만을 근거로 제시할 뿐이다. 조선시기 불교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처방 구성에 필요한 약재를 사찰에서 구비할 수 없었던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고 한 지적도 마찬가지이다. 저자의 지적처럼 억불정책이 시행되던 조선에서 사찰이 풍부한 의약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지적이다. 하지만 고대나 고려시기 의료의 주요 주체였던 승려가 자신의 치료 전통을 쉽게 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소멸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없다.

저자가 계통적인 서술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로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의료의 상업화, 민영화라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조선 후기에 수용된 서양의학의 성격을 참된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문명화에 필요한 것으로 시기구분하면서 서양의학 수용의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부분도 계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그 정도이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계통은 찾기 힘들다. 결국 계통을 잡기 위해서는 저자가 쓴 논문들 혹은 같은 시기를 분석한 연구자들의 논문에 기댈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이 책은 교과서에 대비되는 참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교과서의 이론이나 주장을 풍부하게 설명해주는 참고서 말이다.

사소한 문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 책은 일종의 모음이다. 저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 중 의약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활용한 것이다. 저자는 “각 편마다 완성된 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논의의 성격을 띠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활용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책의 일관성 있는 서술을 위해 별개의 논문이었음을 상기시키는 문구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내가 퇴계학연구원으로부터 처음 청탁을 받을 때” “이 논문과 관련된 분야” 등이 그 예이다. 별개의 논문들이 합쳐지다 보니 약간의 어감 차이가 병존하기도 한다. “약계의 성행과 대동법 실시의 시기가 겹친다는 것은 꼭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는 다소 유보적인 견해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이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대동법의 실시”였다는 단정적인 주장이 병존한다.

다른 하나는 기존 연구를 충분히 참조하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자는 연구동향을 통해 각 주제들에 대해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본문의 중간중간에 그 연구들이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용은 제한적이다. 많은 경우 인용된 연구들은 저자 자신의 것들이다. 나머지 것들도 저자의 주장을 보완해주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이 저자와 다른 어떤 내용을 서술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다면 독자들은 직접 그 연구자들의 글을 읽는 수밖에 없다. 독서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하지만 그 연구자들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알기는 힘들다.

몇 가지 지적을 하였지만 이 책은 한국의약생활사를 환자를 중심으로 서술했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 할 일은 저자가 열어놓은 길을 더 넓히는 일이다. 이 책은 시작이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이 책의 서술 주체는 비록 환자이기도 하지만 권력자요, 지식인들이다. 여성, 노비, 아이들은 여전히 대상일 뿐이다. 저자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자는 황윤석의 일기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종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약물을 얻지 못한 자가 복이 되고, 약물이 많은 자가 오히려 화가 된다”는 아이러니를 전하면서 “비싼 약을 하사하는 왕의 조치를 무색케 하는 천민의 의식이 당대에 공존”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증언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기 사족들을 제외한 의약 이용자는 25%를 넘지 않았다. 평민이나 노비 천민은 10%가 되지 않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약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경향은 195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식민지시기의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국전쟁 이후 상황은 아직 혼란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생활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때 의약생활사는 1980년대 민중사학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그 문제점들을 극복한 한국 역사학의 중요한 재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